
정책참고자료

2017-4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기관별로 산재된 재난사고 정보를 통합 운영한다	—————	4
2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에 해결하세요	—————	10
3	기획재정부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추진	—————	13
4	교육부		
	학생은 행복하고 부모는 만족하는 초등돌봄교실	—————	15
5	미래창조과학부		
	앞으로 1년, ICT 품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만전	—————	19
6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 특화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본격시작	—————	26
7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AI 발생현황 및 방역추진 상황	—————	29
8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통합허가 지원센터’ 개설	—————	50

9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_____	53
	11개 민간훈련기관, 24개 훈련과정 선정		
10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 전문인력 양성으로	_____	57
	일상고민부터 위기상황까지 맞춤형 상담 강화		
11	국토교통부		
	“4차 산업혁명, 공간정보가 주도”... ‘공감 2017’ 개최	_____	60
12	해양수산부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양식분야 4차 산업혁명 이룬다	_____	63

기관별로 산재된 재난사고 정보를 통합운용한다

- 올해 안에 '재난사고 분석시스템' 시범운영 추진 -

※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통해 본 재난사고 분석시스템의 필요성

<사례> 2012년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농작물 및 가축 피해가 발생함.

<문제점> 화학물질 정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초동대응이 미흡하였으며, 사고 발생시 원인을 분석하고 위험정보 및 재난 수습, 복구에 대한 필요 정보를 유관기관 간에 공유하지 못하여 피해 증가.

⇒ 재난사고 분석시스템 개발·운영을 통하여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화학물질안전원, 기상청,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정보, 과거 사고대응정보, 확산예측정보, 현장정보 등의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여 재난발생원인, 방재정보, 주민대피정보 등을 신속하게 알 수 있게 됨.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재난·사고정보의 통합관리와 지능형 분석이 가능한 '재난사고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 이 시스템은 기관별*로 산재된 재난·사고정보를 수집·공유하여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관련 빅데이터를 지능형 분석기법을 통해 특수재난 대응에 활용하게 된다.
 - * 한국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안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또한 '재난사고 분석시스템'에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사전에 대형복합재난의 위험성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
- 국민안전처는 지난 해 수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올 10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올해 안에 '재난사고 분석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위험성(위해성) 평가기법 개발 연구, 재난사고관리 운영 지원시스템 개발(상세설계) 및 재난사고정보 통합관리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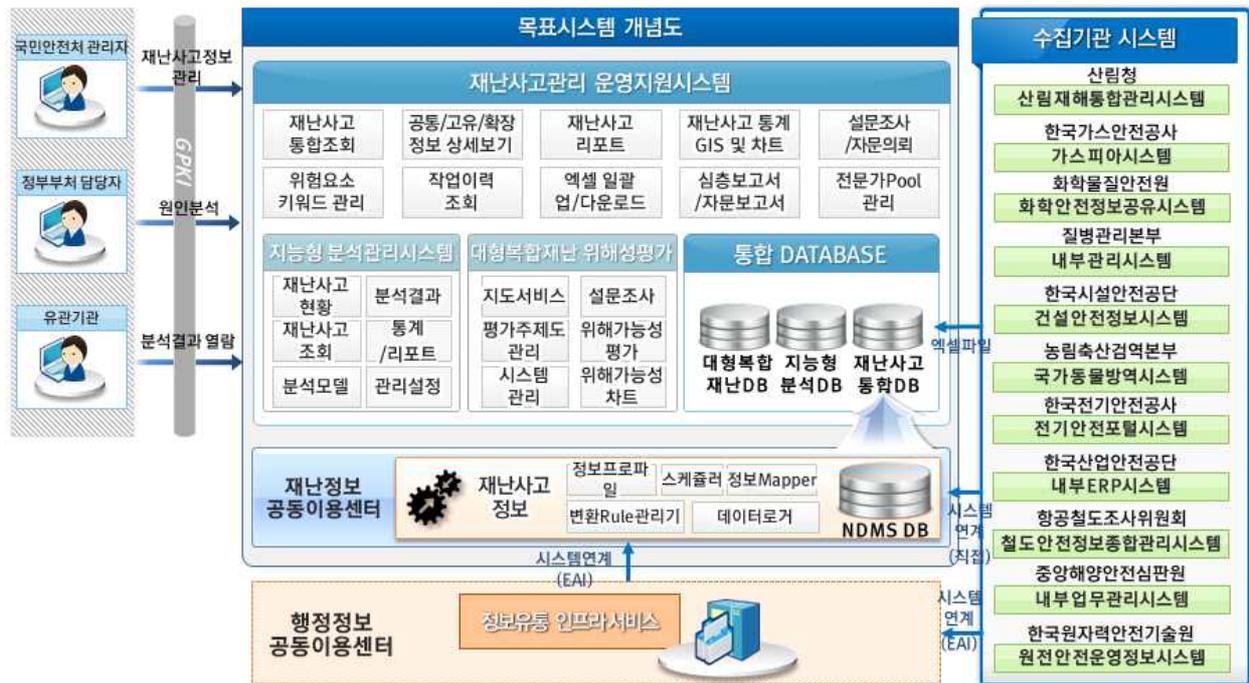
- 국민안전처 소철환 미래재난협업담당관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 재난 사고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형복합재난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밝혔다.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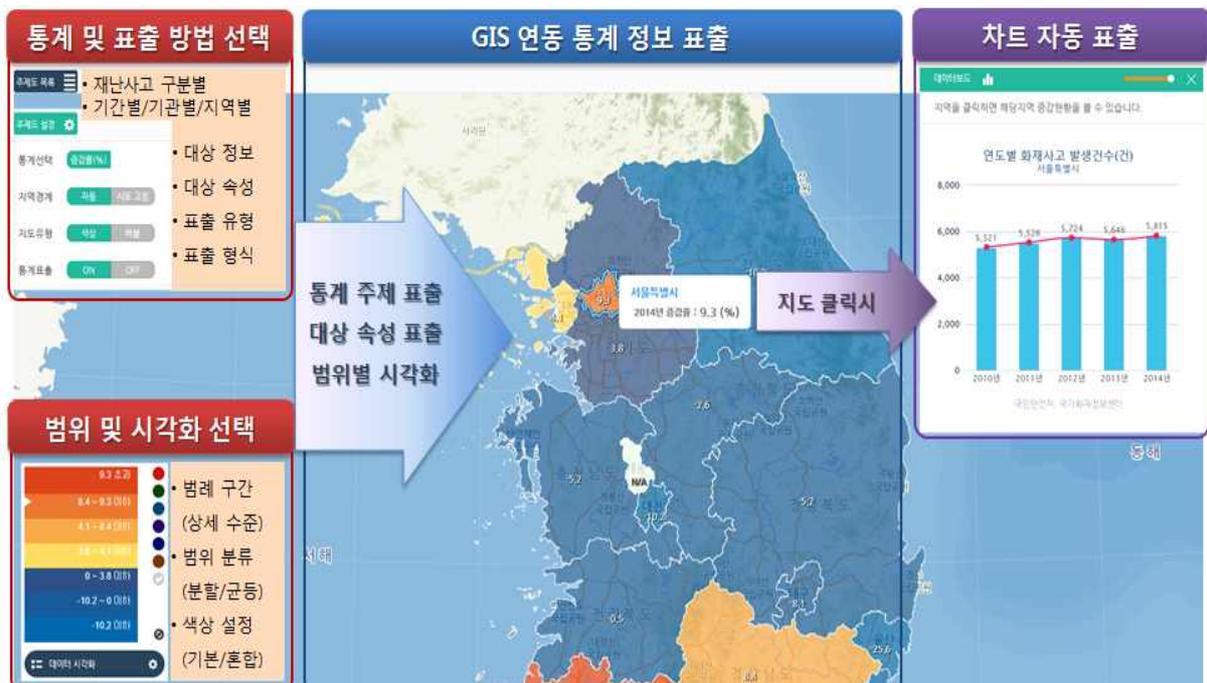
재난사고 분석시스템 구성 및 예시화면

□ 재난사고 분석시스템 구성도

“재난사고 분석시스템을 통한 **목표시스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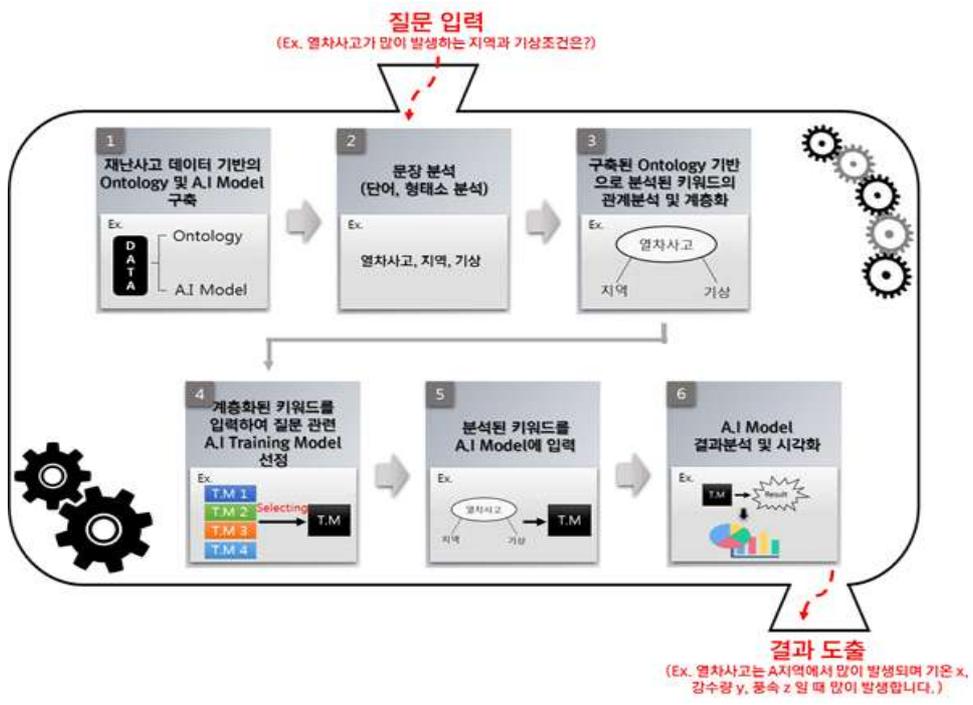
□ 재난사고정보 분석·관리(예시)



참고 2

재난사고정보 지능형 분석 모형

□ 지능형 분석 모형 구축 방안



□ 지능형 분석관리시스템 주요화면(예시)



참고 3

개별법률에 의한 재난사고 원인조사 기구

연번	재난유형	근거법률	조사기구	주관기관
1	시설물, 건축물의 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3)	시설물사고 조사위원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부
2	건설현장 사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68조)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부
3	산불	산림보호법 (제42조)	산불전문조사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4	산사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7)	산사태평가단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5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사고	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화학사고조사단 (화학물질안전원)	환경부
6	고압가스 사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6조의2)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부
7	액화석유가스 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부
8	도시가스 사고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부
9	전기 및 전력설비 사고	전기사업법 (96조의3)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부
10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역학조사반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11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역학조사반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식품부
12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6조), 시행령 (제13조)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부
13	항공기·철도·지하철 사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부
14	해양선박 등 해양사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양안전심판원	해수부
15	태풍, 홍수, 강풍, 낙뢰,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안전처
16	지진재해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중앙지진피해조사단, 국외지진피해조사단	안전처
17	화재	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조사전담반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처
18	저수지·댐의 붕괴, 파손 등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안전사고조사반	안전처
19	승강기 사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안전처
20	해양조난사고	수난구조법 (제25조)	사고조사단	안전처
21	119항공기 사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19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	안전처
22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관리감독기관	안전처

23	교통사고	교통안전법 (제50조)	교통사고원인조사반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국토부
24	조류, 직조 등 해양환경오염사고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수부
2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발생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28	환경오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중앙부처 및 지자체	환경부
27	문화재의 화재·재난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28	기후 변화	기상법 (제21조)	기상청장	기상청
29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환경부,농림부 시도, 시군구	환경부
30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고	원자력안전법 (제74조) 및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규정(원안위 고시)	사고등급평가위원회 (한국원자력기술원)	원안위
31	방사능 사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43조)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	원안위
32	정보통신기반시설 사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0조, 19조 및 20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미래부
33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민관합동조사단	미래부
34	우주물체 발사·운용, 고장·추락·충돌·폭발 등 우주사고	우주개발진흥법 (제16조)	우주사고조사단	미래부
35	연구실 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연구실 사고조사반	미래부
기타	사이버공격 피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3조/미래부 훈령)	범정부 사이버위기 대책본부	국정원, 금융위

2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에 해결하세요”

국민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전국 63개 심판기관으로 확대

-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가 전국 63개 심판기관으로 확대되어 이제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편의와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2013년부터 총 4단계로 추진해 온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국 총 63개 심판기관에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앞서 2013년 1단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해 2014년 2월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부산·제주 등 3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경기교육청 및 서울지방교정청 행심위 등 6개 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2015년 1월에는 경기도·대구광역시, 서울고검 행심위 등 15개 기관이, 2016년 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교육청 행심위 등 21개 기관이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는 헌법재판소 행심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대전·대구·광주고검 행심위, 대구·광주지방교정청 행심위를 비롯해 세종·충남·부산 등 3개 교육청 행심위, 부산·광주·세종·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제주 등 10개 시·도 소청심사위, 경기교육청 소청심사위 등 21개 기관이 새롭게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총 4년에 걸친 4단계의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17개 광역시·도 행심위와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을 모두 포함해 사실상 온라인 행정심판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전국 63개 심판기관에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심판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 <http://www.simpan.go.kr>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연간 행정심판 청구건수 중 온라인을 통한 청구 비율은 2012년 13.6%에서 지난해 27.5%로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민원 신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대상기관을 확대해 필요한 모든 곳에 행정심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구축현황

구분		1단계('13년)	2단계('14년)	3단계('15년)	4단계('16년)
국 가 기 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장기요양심판위원회 (복지부) 헌법재판소
		1		1	2
	고등검찰청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	1	1	3
	지방교정청	서울		대전	대구, 광주
		1	-	1	2
사·도 행심		서울, 부산 제주	강원, 경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광주	인천, 전북 전남, 대전 충북, 충남 세종	
		3	7	7	-
사·도 소청			강원 경기	울산 전남	부산, 광주 세종, 대전 대구, 제주 충북, 충남 경북, 경남
		-	2	2	10
교육청 행심		경기	강원, 대구, 경북, 경남, 광주	서울, 충북 대전, 인천 전남, 전북 울산, 제주	세종 충남 부산
		1	5	8	3
교육청 소청				서울	경기
		-	-	1	1
총계		6개	15개	21개	21개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추진

-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수도 급감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출산율(%): ('01)1.29 ('05)1.08 ('10)1.23 ('13)1.19 ('14)1.21 ('15)1.24

* 출생아수(천명): ('14)435.4 ('15)438.4 ('16.1~11)379.3 / ('16.11)30.3
증감률(% 전년동기비): -0.2 0.7 -6.7 -9.6

- 이에 기획재정부는 '17년 경제정책방향에 기 발표한 바와 같이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함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 중 '16년 저출산 지원 대상사업(약 21.4조원 규모): 청년일자리·주거, 출생의 사회적 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교육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4대 분야

- 기획재정부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2.3.(금)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해왔으나 출산율 제고 등 효과는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며,

* 제1차 기본계획('06~'10): 19.7조원, 제2차 기본계획('11~'15): 60.5조원

- 결혼-임신-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출산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강조

- 특히 이번 심층평가에서는 재정투입이 많은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와 지원이 시급한 일·가정양립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 저출산 지원 예산의 약 74%(15.8조)가 돌봄.교육에 집중

-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된 청년 일자리.주거 분야 과제 등의 경우에는 저출산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자원배분의 타당성 등을 평가할 계획

- 동 심층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PM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 4개 분야 전담 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 총괄(조세연 전병목 박사, 김문정 박사), 보육(육아정책연 양미선 박사), 교육(조세연 안종석 박사), 일가정양립(여정연 홍승아 박사) 등

-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심층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 기재부.교육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관련 국장

-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일.가정양립 등 주요한 과제에 대한 결과를 상반기 중에 우선 도출하여 '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

학생은 행복하고 부모는 만족하는 초등돌봄교실

「사랑 가득, 돌봄전담사들의 이야기」

- 돌봄전담사 초등돌봄교실 운영 우수사례 20개 선정 발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는 2016. 2. 10.(금) 돌봄전담사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 「돌봄전담사 초등돌봄교실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공모전은 초등돌봄교실*에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 * 별도 시설(전용, 겸용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 (전국 초등학교 11,920교실 약 24만명 이용, 대한민국 정책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상위권 선정)
 - **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학생의 보호, 돌봄교실관리, 기타 돌봄교실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
 - 우수한 돌봄교실 운영 노하우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돌봄전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 함으로써 질 높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였다.
- 우수사례 선정은 각 시·도교육청이 1차 선정하여 추천한 58편의 수기를 바탕으로 교육청 전문직, 현장교원, 대학 교수 등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실천 노력, 실제적 공헌도, 운영방법의 창의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3회에 걸쳐 심사*하였다.
 - * 심사 일정 : 서면심사('16.12.20) → 면접심사('16.12.23) → 현장실사('16.12.26~28)
 - 그 결과, 우수사례 총 20편을 선정하고 돌봄전담사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수상작들에는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돌봄교실 운영, 학생 선도 및 학부모 인식 개선, 지역사회 기관 및 자원의 연계·활용, 기타 운영 우수사례 등 돌봄전담사들의 내실있고 질높은 운영 노하우가 담겨있다.
 - (인천 인수초등학교 전선미 돌봄전담사)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조손가정 학생에게 지역사회에 연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명의 아이라도 돌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열정있는 자세를 보였다.

- (서울 한서초등학교 김창희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 저학년 아이들의 수준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정 공연 및 독거노인을 위한 겨울철 물건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 나이때부터 나눔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세종 참샘초등학교 김영미 돌봄전담사)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하며, 집안사정이 어려워 양육을 포기한 위기 학생의 학부모를 설득하여 아이를 보호함으로써 아이가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다.

• [아이들의 마음을 안아주는 소울메이트]

영민(가명)이는 지적 장애를 앓고 계시는 할머니와 생활하고, 3년 동안 돌봄교실에 다녔던 친구이다. 영민이는 암기력이 뛰어나고 두뇌가 명석했으나, 날씨에 따라 옷을 갈아입지 못할 만큼 제대로 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이었을까 분노장애를 갖게 되어 영민이가 지나가면 공기 중에 퍼지는 냄새에 아이들이 불쾌감을 표현했다. 그래서 인가 돌봄교실에서도 영민이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중략) 영민이는 어려운 형편으로 끼니를 거르고 배를 곶고 돌아다니기 일쑤였다. (중략) 담임선생님, 사회복지관 담당 복지사 선생님과도 영민이 지원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졌다. 생활용품(옷, 이불)을 전달해주기도 하고 도서류와 책상 등도 가져다주었다. 충치치료, 변비치료도 하면서 영민이가 학교생활에 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이 계속되었다. 복지관 선생님, 담임선생님, 교감선생님까지 영민이네 가정방문이 이어졌다. (중략) 결국 학교에서만 다 해결할 수 없는 영민이의 석식 지원과 장시간 보육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결정하게 되었다. (중략) 4학년 2학기 때 영민이는 전학을 가게 되었다. (중략) 한참을 지나서 지난 11월 즈음 영민이가 돌봄교실에 찾아왔다. 이사 한 곳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택시를 타고 왔단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찾아오기까지 지난 돌봄교실에서 느꼈던 사랑의 온기가 그리워서였을 것이다. (인천 인수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전선미)

• [사랑을 실천해요]

5월 어버이날에는 노인정이나 시니어센터를 방문하여 공연을 보여드리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12월에는 추운 겨울을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득찬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따뜻한 차나 쌀, 장갑, 수면양말, 라면 등 다양한 월동물건을 집에서 각자 부모님과 상의해서 가지고 오게 하였다.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손 편지도 함께 포장해서 전해드리는데, 작년에는 내내 누워만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께서, “거동이 불편해도 병원에 데리고 가줄 자식이 없어 허전했는데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선물을 받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며 눈물을 닦으셨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감사의 씨앗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어떤 것보다 보람되고 중요한 것을 가르쳤다고 느꼈다. (서울 한서초등학교 돌봄전담사 김

창회)

• [따스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

영희(가명) 할머니는 아들을 대신해서 아이를 돌봐왔지만 초등학생이 되고 보니 아이들 돌보기가 더 어려워지고, 아들도 별 도리가 없어서 미리 알아본 고아원으로 아이들을 다음 주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형편의 학생들에게 돌봄전담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학생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까? 하는 부담으로 나를 늘 채찍질하게 되었다.(중략) 할머니와 여러 차례 만나서 영희가 방과 후에도 저녁 까지 돌봄교실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과 돌봄의 학습관리와 놀이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렸다. 나도 적극적으로 영희를 돌봐 할머니의 힘을 덜어 드릴 테니 어려우셔도 함께 영희가 잘 성장하도록 돕자고 설득을 했다. “그래도 지금 정 떼는 게 나아요.” 할머니가 고집스럽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할머니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들에게도 그렇게 전할게요. 우리 영희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며 돌봄교실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 오셨다.

(세종 참샘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김영미)

- 교육부는 돌봄전담사들의 우수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높은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에 게재하고, 「사랑가득, 돌봄전담사들의 이야기」로 엮어 발간하여 2월중 배포할 예정이다.
-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돌봄교실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받을 만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한 것은 돌봄전담사의 노력 덕분”이라며 “돌봄전담사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1】 초등돌봄교실 운영 우수사례 선정 명단 및 주요내용

붙임1

초등돌봄교실 운영 우수사례 선정 명단 및 주요내용 (지역순)

지역	소속	성명 (경력)	주요 내용
강원	교동초	차여선 (1년)	<p>[꿈이 자라는 곳]</p> <p>총 4년의 돌봄전담사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청 전래놀이 연수를 바탕으로 꾸준한 신체활동과 놀이중심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역사배우기, 창의적 만들기, 과학체험, 요리교실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놀이와 표현 활동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혼자 무언가를 계획하여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스스로 어린이’가 되어 점차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의 활동 산출물을 그때그때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학부모에게 전송하며, 연말이나 학년 종업식 때 콜라주로 꾸며 작품집을 만들어주기도 한다.</p>
강원	성림초	성수미 (4년)	<p>[꿈과 희망이 자라는 일곱 빛깔 무지개 돌봄교실]</p> <p>가정과 같은 돌봄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돌봄교실의 구조를 개선하였고 놀이, 식품, 귀가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의 활동, 종이공예, 교육용 DVD 시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미술 활동에 대해서는 1일 전시회를 열어 학생들의 창작물을 교내에 전시하고, 작품의 사진을 찍어 학부모들에게 소개한다. 또한 재능발표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학생들의 숨은 끼를 발굴하여 학부모와 공유하고 있다.</p>
충북	쌍봉초	박혜경 (6년)	<p>[지역사회연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3up! 행복동행]</p> <p>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학생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방학마다 지역 인근의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여 위문공연을 하고 있다. 또한 창의블럭, 점핑클레이, 쿠키클레이, 방송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p>
충남	선장초	유명진 (9년)	<p>[행복한 아이로 쑥쑥 커가요]</p> <p>학생들의 건강한 식사가 교육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직접 재료를 골라 요리하고 있다. 숙담지도, 창의교육 시청 등을 통해 기본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친구생일 챙겨주기, 모둠별 놀이, 마니또 등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융합형 방학 캠프를 실시하여 놓어준 학생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악기연주, 뉴스포츠, 국악, 동화 스피치, 영화관 나들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p>

앞으로 1년, ICT 품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만전

- 최양희 미래부 장관, 올림픽 테스트이벤트 현장 방문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2.10(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릉 아이스아레나와 평창 및 보광 스노경기장을 방문하여 평창ICT올림픽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이번 방문은 올림픽 1년여 앞두고 개최되는 올림픽 테스트이벤트('16.11.~'17.4.)와 연계하여 K-ICT 서비스 실증상황을 현장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K-ICT 서비스 5대 분야 :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올림픽, 편리한 사물인터넷(IoT) 올림픽, 감동의 초고화질(UHD) 올림픽, 똑똑한 지능정보(AI) 올림픽, 즐기는 가상현실(VR) 올림픽
 - 최양희 장관은 강원도지사, 강릉시장 등 올림픽 관계자들과 함께 강릉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을 방문하여 5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 평창으로 이동하여 평창 스키점프대와 올림픽플라자 구축현장을 시찰하며 올림픽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또한, 최양희 장관은 현장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FIS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있는 보광 스노경기장을 방문하였다.
 - 미래부는 올 4월까지 개최되는 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기간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ICT올림픽을 목표로 추진중인 5대 ICT 분야 기술 및 서비스를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 주니어컬링 세계 선수권 등 주요 경기 중계 등과 연계하여 실증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 < 평창올림픽 K-ICT 5대 분야 테스트이벤트 연계 경기 > —

- ▶ 5G :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봅슬레이 & 스켈레톤 월드컵
- ▶ IoT :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월드컵
- ▶ UHD : 쇼트트랙 월드컵,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 주니어컬링 세계선수권
- ▶ AI :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월드컵, 봅슬레이 & 스켈레톤 월드컵
- ▶ VR :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

-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적용될 K-ICT 서비스의 준비현장 점검을 통해 성공적인 ICT올림픽 구현을 차질 없이 완성하고, 관련 ICT 기술 및 서비스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진출이 더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며,
 - “앞으로 올림픽까지 1년도 남지 않은 기간 정부 및 올림픽 관계자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서로 잘 협조하여 세계인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을 구현할 것”을 당부하였다.

□ 추진 배경

- 평창올림픽 테스트이벤트와 연계한 ICT 서비스 실증 현장 및 올림픽 경기 시설 방문, 평창 ICT 올림픽 준비상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 방문 개요

- 일시 : 2017. 2. 10.(금) 13:30~19:30
- 장소 : 강릉 코스타 클러스터,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 보광 스노경기장
- 참석 : 미래부(장관,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대변인, 방송산업 정책과장), 강원도(지사, 강릉시장), 조직위(정보통신국장)
- 내용
 - ICT 서비스(5G, IoT) 실증 준비 현장 방문(강릉 아이스아레나)
 - 올림픽 경기시설 시찰
 - 스피드 스케이팅장 (강릉)
 - 스키점프대 및 올림픽플라자 (평창)
 - 스노경기장 (보광)

구분	시간	주요 내용
강릉 (ICT 실증 준비현장, 경기장시찰)	13:30~15:00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시설 방문 (스피드스케이팅장) ▪ 5G, IoT 서비스 준비 현장 시찰 (아이스아레나)
평창 (경기장시찰)	16:00~17:0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시설 방문 (스키점프대, 올림픽플라자)
	17:15~18:30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찬 (올림픽조직위 관계자)
보광 (경기장시찰)	18:30~19:0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만찬장 → 보광스노경기장)
	19:00~20:3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시설방문 및 시상 (보광 스노경기장)

I. IoT 서비스

① 참여형 올림픽 관람·안내 서비스

- 개념 : 개인의 모바일디바이스와 디지털사이니지를 연동하여 맞춤형 Welcome, 참여형 응원, AR 영상합성 서비스 등 제공
- 이용 대상 : 국내외 관람객
- 이용 방법 : 경기장 내 설치된 미디어월 및 키오스크를 통해 서비스 이용



② 스마트 안전관리

- 개념 : CCTV 영상분석과 IoT인프라를 활용하여 베뉴 혼잡도 측정 및 분석을 통해 관람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경기 관람을 제공
 - ※ 베뉴 입장 혼잡도 및 예상대기시간, 혼잡도에 따른 이동동선 안내 등
- 이용 대상 : 조직위 측 안전관리 관계자 및 국내외 관람객
- 이용 방법 : 스마트폰을 통해 IoT앱을 다운받으면 자동으로 알림 발송

③ AR 길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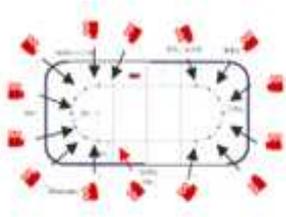
- 개념 : 입국에서 경기관람, 출국까지의 관람객 이동구간에 AR 및 정밀측위 기술을 활용한 개인 위치 기반 실내외 길 안내 서비스
- 이용 대상 : 국내외 관람객
- 이용 방법 : 스마트폰 모바일가이드앱을 통해 IoT앱을 다운받아 이용



II. 5G

① 인터랙티브 타임 슬라이스

- 개념 : Time-Slice 카메라 촬영을 통해 시청자가 원하는 장면을 interactive하게 360°로 돌려가며 볼 수 있음
- 이용 대상 : 방송 및 모바일 시청자
- 이용 방법 : 100여대의 카메라를 경기장 천정 혹은 펜스 상단에 설치하고, 촬영 영상을 전광판 또는 방송을 통해 타임슬라이스 영상 방영



경기장(강릉아이스아레나)
관중석에 Cam설치



시청각도를 조정하면서 시청



클릭하는 순간을
타임슬라이스 영상으로 즉시제공

- ※ 싱크뷰(16.2월, 스키점프대회), 포인트뷰(17.2월, 크로스컨트리대회)은 실증완료
- ※ 싱크뷰(17.3월, 봅슬레이대회) 추가 실증 예정

② 360° VR Live

- 개념 : 경기장 내 360° VR 카메라를 설치하여 선수들의 감격적인 순간을 HMD 및 앱을 통해 생동감 있게 실시간 관람이 가능한 서비스
- 이용 대상 : 방송 및 모바일 시청자

- 이용 방법 : 360° VR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5G 망을 활용하여 전송하고 이를 시청

1 Kiss and cry zone



2 경기장 중앙 전광판

3 그린존/선수 대기존/연습경기장



[5G]



경기장 내부 관중석 HMD 제공
(약 10석)



관중 360° Live VR 관람



붙임3

테스티이벤트 연계 전체 ICT 실증 내용

테스티이벤트 경기명	기간	장소	ICT 실증내역
알파인 극동컵	1.16~1.17	평창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2.3~2.5	평창	5G (포인트뷰 등)
노르딕 복합 월드컵	2.4~2.5	평창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	2.9~2.12	강릉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	2.10~2.18	평창	UHD (KBS 중계 실증)
스노보드 월드컵	2.12~2.19	평창	
스키점프 월드컵	2.15~2.16	평창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2.16~2.19	강릉	5G (멀티뷰 등), IoT (길안내 등), AI (자동통번역), 개인소셜
주니어컬링 세계선수권	2.16~2.26	강릉	UHD (MBC 중계 실증)
루지월드컵&팀릴레이 월드컵	2.17~2.19	평창	
바이애슬론 월드컵	3.2, 4~5	평창	
스키 월드컵	3.4~3.5	정선	
봅슬레이&스켈레톤 월드컵	3.17~3.19	평창	5G (싱크뷰, 5G버스), AI (무인모니터링)
아이스하키 U-18 및 여자세계선수권	4.2~4.8	강릉	

평창올림픽 특화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본격 시작

- 올림픽 관람 티켓 공식 판매 대행사 초청, 대형 팸투어 및 '평창 관광의 밤'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 강원도와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지(G)-1년을 맞아 '평창 관광의 밤', '케이(K)-드라마 페스타 인(Festa in) 평창'을 시작으로 올림픽 특화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18 평창올림픽 관람 티켓은 총 117만 장이며, 국내에 82만 장, 해외에 35만 장이 배정되어 있다. 해외 티켓 35만 장 중 약 18만 장은 각국 국가 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와 올림픽 공식 후원사(World wide Olympic Partners)에 배정되어 있고, 약 17만 장에 대해서는 국제 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가 승인한 국가별 1개의 올림픽티켓 공식 판매 대행사(Authorized Ticket Reseller, 이하 ATR)가 올림픽 티켓 판매 및 올림픽 관광상품 개발·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화를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 겨울이 가기 전에 관계자들에게 평창올림픽 개최지를 보여주는 것이 올림픽 관광 상품화에 효과적인 만큼, 관광공사와 함께 북미(미국, 캐나다), 유럽(영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랑스), 아시아(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호주 등 15개국 올림픽티켓 공식 판매 대행사(ATR) 관계자와 해외 언론인 155명을 초청한다. 이들은 2월 16일(목)부터 19일(일)까지 진행되는 대형 팸투어와, 2월 17일(금)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열리는 '평창 관광의 밤'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팸투어는 ▲사전점검대회(테스트이벤트/스키점프 대회, 스노보드 월드컵대회, 4대륙 피겨스케이팅 대회) 관람을 비롯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체험관 방문, ▲한국전통문화(평창 정강원, 월정사 템플스테이 등) 체험, ▲지역 명사 프로그램(허브나라농원, 아리랑센터 박물관, 흑유도예) 체험,

▲평창·강릉 주요 관광지(선교장, 오죽헌, 테라로사 커피공장) 방문, ▲강원 지역 주요 음식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평창 관광의 밤’에서는 조직위가 올림픽 준비 상황과 올림픽 관람상품 개발 정책(상품 개발 시 ATR의 유의사항 포함)을 발표한다. 이후 관광공사가 ▲올림픽 관광 상품화 여건, ▲추천 관광코스(평창관광로드 10선 등), ▲관광상품 개발 시 지원 사항 등을 설명한다. 또한 이에 앞서 올림픽티켓 공식 판매 대행사(ATR)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현지여행사(랜드사)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들과 올림픽티켓 공식 판매 대행사(ATR) 간 상품 개발을 위한 기업 간 거래(B2B) 상담도 진행해 여행업계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는 북미, 유럽, 중국, 일본 등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로드쇼 개최, 관광 상품화 지원, 온라인마케팅 등을 통해 해외에서 올림픽 관람상품 개발·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속 마케팅을 전개한다. 그리고 올림픽 공식 후원사*와 공동 홍보(프로모션)도 추진해 평창올림픽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현황: 삼성전자, 비자, 코카콜라, 맥도날드, 제너럴일렉트릭(GE), 피앤지(P&G) 등 12개 업체

한편 문체부는 관광공사, 조직위와 함께 작년 12월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올림픽 관련 포괄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해외에서 올림픽 관련 이미지 노출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 회의를 토대로 “올림픽 관련 해외마케팅이 적기에 추진되어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신속한 승인 등,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라고 회신했다.

지(G)-1년 계기 ‘케이 드라마 페스타 인 평창’ 개최, 한류관광 사전 마케팅 전개

문체부는 관광공사, 강원도와 함께 2월 18일(토) 평창 용평돔구장에서 한류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는 ‘케이(K)-드라마 페스타 인(Festa in) 평창’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의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촬영한 <도깨비> (주문진, 월정사, 용평리조트 등)와 <사임당, 빛의 일기>(오죽헌, 선교장) 등

한류 드라마 홍보 프로그램, 드라마의 삽입음악(OST) 콘서트와 케이팝(K-POP) 콘서트, 한복 패션쇼 등으로 꾸며지며, 엑소 첸백시(EXO-C.B.X.), 비투비, 아스트로, 김범수, 거미, 린 등이 출연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관광공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전 마케팅을 진행해 외래관광객이 총 5천 석의 절반인 약 2천5백 석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림픽 기간에는 원거리 시장인 유럽, 북미 등 동계스포츠 강국에서 오는 외래 관광객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시장 다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올림픽 특화 마케팅 외에도 평창올림픽 해외 인지도 제고, 2017-2018 강원 지역 동계관광 활성화, 관광 분야의 올림픽 유산(레거시) 창출, 손님맞이 수용 태세 개선 등 다른 과제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구제역·AI 발생현황 및 방역추진 상황

《 주 요 내 용 》

< 구제역 >

- ◇ (발생현황) 2월 5일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월 12일 추가 발생을 포함하여 총 6건이 발생하였다
- ◇ (방역조치) 2월 9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정부는 중앙사고수습 본부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 전국의 소 사육 농가소 사육 농가에 일제 접종(99.4%) 완료
 - 시·도 우제류의 타 지역 반출금지 기간을 2.19일까지 연장
 - 연천, 보은 발생 지역에 특별방역팀 투입 등 추가 방역조치
 - A형 구제역 추가 발생을 대비하여 긴급 백신 수입 추진

< 조류인플루엔자 >

- ◇ (발생현황) '17.2.6일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AI형가 발생한 이후, 추가 의심신고가 7일째 없는 상황이다.
- ◇ (방역조치) 3월까지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장감을 갖고 서해안 지역과 취약농가 방역 및 사후관리에 범정부 총력 대응

I. 구 제 역

가 발생 상황

□ (발생 현황) 2월 5일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월 12일 추가 발생을 포함하여 총 6건이 발생하였다

○ 지역별로는 충북 보은 4건(젓소1, 한우3), 전북 정읍 1건(한우), 경기 연천 1건(젓소)이었으며, 살처분은 17농장 1,203두이다.

지역	축종/두수	백신접종	신고일	혈청형	항체형성율
보은	젓소/195	자가	2.5일	O	A형 15%, O형 20%
정읍	한우/49	자가	2.6일	O	A형 5%, O형 5%
연천	젓소/100	자가	2.8일	A	A형 90%, O형 52%
보은	한우/151	자가	2.9일	O	A형 38%, O형 38%
보은	한우/68	자가	2.11일	O	A형 59%, O형 76%
보은	한우/171	자가	2.12일	O	A형 83%, O형 87%

- 보은·정읍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이고 연천은 A형으로 소에 백신접종 중인 유형*, 2가지 유형 동시 발생은 처음

* 접종 유형: (소) O+A, (돼지) O / 미접종 유형: Asia1, C, SAT 1·2·3형

○ 그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주로 O형이며, A형은 '10.1월 소에서만 발생한 이후 그간 발생하지 않았다.

* 총 8차례 발생: (O형) 7차례, (A형) 1차례

※ 해외발생 : ('16) < O형 > 중국, 러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313건, < A형 > 몽골, 사우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30건 발생

- **(발생 원인)** 유전자 분석결과, 보은·정읍 O형은 '15년 방글라데시·'16년 러시아, 연천 A형은 '16년 베트남·미얀마 등의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높아,
 - 국내 잔존 바이러스가 아닌 해외 유입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 농장 발생 원인은 역학조사 중이나, 일부 농가는 백신의 보관·취급·접종 과정에서 미흡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상황 분석 및 과제)** 구제역이 여러 시·도(경기, 충북, 전북)에서 발생하고 기존 발생유형(O형)과 다른 A형이 동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2.9일)
 - * (2.5일) 관심 → 주의, (2.6일) 주의 → 경계, (2.9일) 경계 → 심각
 - 연천 A형 구제역이 소에서 돼지로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보은 방역대 내에서 산발적 발생을 억제하며 인근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주요 방역 조치

- **(대응 체계)** 정부는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를 중심으로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 간 공조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 * 안전처, 행자부,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약처

- **(그간 방역 조치)** 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① 전국 소 일제접종(2.8~2.12), ②발생 도에서 타시도 우제류 반출금지(2.6~2.15), ③농장간 생축이동 금지(2.9~2.18), ④가축시장 폐쇄(2.9~2.18)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일제 백신 접종)** 전국의 소 사육 농가(283만두*)에 일제접종(99.4% 완료)하였고 A형 발생으로 연천과 인근*의 소는 O+A형을 긴급 접종(2.8-2.12)을 하였다.

* 전국 소 330만두 중 제외(47만두) : i) 기 발생지역(보은,정읍)의 소, ii) 접종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소, iii)출하예정 2주이내의 소

* 14개 시·군: (경기) 김포, 구리, 남양주, 가평, 포천, 의정부, 동두천, 고양, 파주, 연천, 양주, (강원) 철원, 화천, 춘천

< 지역별 일제 백신 접종 현황(2.12) >

△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 백신접종 완료

△ 강원도는 2.13일 오전 중, 제주도는 2.14일까지 완료 예정

※ 전국 일제 백신접종 완료 1주일 후 항체 모니터링 검사 예정

○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 등을 동원(1,200개반 3,600명)하여 접종, 50두 이상 농가는 담당공무원이 접종을 확인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백신접종 프로그램 및 요령, 백신 보관방법 등 축산농가 교육,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 리후렛(68만부), SNS문자발송, 언론매체(신문 및 방송)를 통한 홍보 등 추진

□ **(추가 방역 조치)** 백신접종 항체형성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생 시,도 우제류의 타 지역 반출금지 기간을 2.19일까지 연장 조치*하였으며, 지역별 추가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기존) 충북·전북 2.13일, 경기 2.15일 → (연장) 2.19일

○ **(연천)** 소에서 돼지로의 A형 구제역 전파 방지를 위한 핵심 지역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 소·돼지 전용 도축장을 지정하고 사료 운반차량을 분리 운영하고, 돼지농장 군 병력 배치, 축산 관련 차량 운행도로 집중 소독(농협 방제기3대, 군 제독차량 2대) 실시한다.

- 검역본부·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상주 특별방역팀을

운영하고, 축산차량은 세차·소독 후 소독 필증을 휴대한 경우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출입토록 조치하였다.

- (보은) 3Km 이내 방역대 내 산발적 발생을 억제하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 특별방역팀(5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이동통제 등 지도·점검(2.12~)을 강화토록 조치하고,
 - 보은군의 발생지역 10km내 매일 2회 이상 소독 및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보은군 사육 소가 최근 2주간 출하된 도축장 일제 소독(2.13~14)하도록 하였다.

다 백신 적합도 및 수급

- (백신 적합도) 정부는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금번 발생한 바이러스의 방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체적으로 바이러스 분리 등 백신 주에 대한 매칭 검사에 착수하였다.
 - 세계표준연구소(퍼브라이트 연구소)에 2.9일 바이러스 시료(O형과 A형)를 송부하였고 매칭실험에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천 A형의 유전자 분석과 백신 적합도 >

△ 연천 구제역 바이러스는 A형 ASIA Sea-97형에 속하며 동 유형에 속하는 13개 분리주에 대한 사용중인 백신주(A22 IRQ)와의 적합성 분석을 검토한 결과, 11개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금번 연천지역 발생한 구제역 예방을 위해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 [참고 6]

< 농장의 항체형성률 의미 >

- △ 항체 형성률은 검사한 가축들에서 항체가 형성된 가축을 백분율하여 나타낸 수치이며, 백신 또는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올 경우 이들 2가지 요인에 의해 항체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O+A 백신 접종된 경우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의 상대편 항체 형성률로 백신 항체 형성율을 판단함
- △ (예) 연천 발생농장 : A형 구제역 발생, A형 항체 형성율 90%이고 O형 항체 형성률 52.3%이면 O형 항체 형성율 52.3%가 백신 항체형성율로 추산 (A형 항체 형성율은 바이러스와 백신에 의한 항체 형성율)
- △ (예) 보은 발생농장 : O형 구제역 발생, A형 항체 형성율 38%, O형 항체 형성률 52.3%이면 A형 항체 형성율 38%가 백신 항체 형성율로 추산

- (백신 수급) 현 발생 상황에서 수급에 큰 문제는 없으나, A형의 구제역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백신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 백신 재고량은 O+A형은 99만두분, O형은 830만두분이며, 계약된 예정량인 O+A형은 160만두(2월말~3월초), O형은 320만두분(2.17, 2.24일)이 도착할 예정이며,
 - * 연간 백신소요 : (O+A형) 700만두분(월 58), (O형) 3,200만두분(월 267)
- 또한, 영국 M사로 부터 O+A형 백신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A형 백신의 국내 발생 바이러스에 대한 적합성 분석 후 수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구제역 백신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여 '16년 8월부터 기존의 영국 이외 러시아, 아르헨티나에서 백신이 수입되고 있다.

라 국경 검역 강화

- (공항만) 해외 여행객 증가 추세로 해외로부터 구제역·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 지난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인 10월부터 검역 인력을 확대 운영 중이며,
 -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입국 공항·만에서 소독 조치를 하고 있다.
 - 세관과 합동으로 휴대품 검사를 매주 335비행편에서 360편이상으로 강화하고, 구제역·AI 발생국 등 운항 노선에 대해서는 검역 탐지견 추가 투입(4개 공항만→12개 공항만) 등 검역을 강화 중이다

※ 해외여행객, 외국인 방문자 등 출입국 동향

구 분	2010년	2016년	비교('16/'10년)
입국자	21,545천명	40,073천명	186% 증가
출국자	21,443천명	39,915천명	186% 증가
축산관계자	50,302명('12년)	89,328명	178% 증가
산업연수생	33,503명	55,545명	166% 증가

법무부 출입국 정보, 검역본부 통계('11.7월부터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 제도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 (검역홍보) 해외 축산농장 방문 자제, 출입국시 신고, 입국 후 5일간 농장 출입 금지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17.6.3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출입국하는 축산관계자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신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입국 신고 위반시 : 1,000만원 이하, 출국 신고 위반시 : 300만원 이하

II. 조류인플루엔자

가 발생상황 분석

□ **(발생 현황)** '16.11.16일 전남 해남·충북 음성 발생 이후 '17.2.10일까지 341호의 가금농장에서 발생(H5N6 340, H5N8 1) 하였으며, 살처분은 821농가에 총 3천3백14만 마리*이다.

* (산란계) 2,362만, (오리) 247만, (육계, 토종닭) 275만, (메추리등) 430만

○ '17.2.6일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AI가 발생한 이후, 추가 의심신고**가 7일째 없는 상황이다.

** 의심신고(건/일): ('16.12월) 6.9 → ('17.1월) 0.7 → ('17.2.1~10일) 0.1

※ (동원인력) 살처분·매몰 33,456명, 이동통제초소 212,957명 (군인·경찰 17,331명)

○ 금번 김제 가금 농장에서 확인된 H5N8은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H5N8(안성천 등)과 유전자가 99%이상 동일한 것으로,

- '16년 중반부터 '17년까지 인도, 러시아, 중국, 유럽에서 발생한 H5N8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4~'15년 국내에서 발생한 H5N8과는 구분되어 야생조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 **(상황 분석)** 2월은 야생철새로 부터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 되고 지역별로 철새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로서

* 야생조류 AI 검출은 55건(H5N6 47, H5N8 8)중 2월에 11건이 검출(H5N6 6, H5N8 5; 확진일 기준)

○ 3월까지 산발적으로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 취약농가 등을 대상으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총력 방역이 필요하다.

나 주요 방역 조치

□ **(서해안 방역강화)** 철새 주요 이동경로인 서해안 지역 가금 농가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중점방역 관리지구*(철새도래지 반경 10km)내 가금위험농가(닭 1,719농가, 오리 480농가) 등 방역 강화를 조치하였다.

* 경기(8개 시군구), 충남(8), 전북(6), 전남(6), 충북(5), 인천(4), 광주(2), 세종 등 8개시도

□ **(취약농가)** 전국 방역 취약농장*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주 1일 이상 현장 점검하고, 농가 차단방역 등 교육을 실시한다.

* 취약농장: 고령(70세 이상), 장애인, 부모 등 경영이 어려운 농가, 청둥오리 등 특수가금 사육농가, 잔반급여 및 방사형 소규모 농가 등

○ 또한, 발생농장(341개)에 대한 시군별 사후관리팀에서 발생 농장의 사후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 지자체별 발생농장 잔존물(분변, 왕겨, 깃털 등) 처리 및 소독 실시 여부 등 점검, 중앙기동점검반에서 사후관리 이행실태 확인 점검 및 관리

□ **(사후관리)** 현재까지 방역지역은 총 139개소이며 방역조치가 완료된 23개 지역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

* 방역대 해제지역 : 전북 김제 2, 정읍 6, 부안 1, 경기 이천 1, 양평 1, 광주 1, 과천 1, 충남 서산 1, 충북 옥천 1, 청주 1, 충주 1, 음성 1, 전남 장성 1, 해남 1, 진도 1, 니주 1, 구례 1

○ AI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 해제 후 가축 재입식 4단계* 절차를 엄격히 준수토록하고, 입식 전 소독 및 방역시설 구비 등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입식시험을 중지한다.

* ① 농장 청소·세척·소독 후 시·군 방역관 점검 → ② 농식품부(검역본부) 점검 및 입식시험 승인 → ③ 시·군 입식시험 → ④ 농식품부(검역본부) 승인

다 AI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추진상황)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사전 대응시스템 구축, 농장 방역 및 초기대응 강화 등을 위한 대책 수립 중이다

* 주요 건의사항: (가칭)방역세 및 동절기 휴업보상제 도입, AI 반복 발생농장 축산업 제한, 위기경보 간소화 등

① (사전 대응시스템) 바이러스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 강화, 야생조류 예찰체계 정비, 살처분 인력 및 매몰지 사전 확보, 방역대 사전 설정 등 발생 이전 대응역량 제고

② (농장 방역)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시설 등 지도·점검 강화, 차단방역기준 마련 등 농장단위 방역 강화

- 낙후·밀집사육지역 재편, 반복 발생농장 및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업 허가 제한, 산란계 사육밀도 상향* 등 생산구조 개선

* 케이지: (기존) 0.05㎡/마리 → (개선) 0.075(기존 농장은 5~10년 유예)

- 계란수집상인의 농장 출입 제한 등 유통체계 보완

* 1회용 난좌 재사용 및 나무 파레트 사용 금지

③ (초기 대응) 단시간 내 AI 발생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기단계 개선 및 민·관·군 총력 대응 등 추진

- 매몰지 사후관리 철저 및 랜더링 확대,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수 관리 강화 등 환경 부하 감소

④ (추진체계) 살처분 보상금 등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방역기관 간 기능 조정 및 방역 현장 조직·인력 확충 추진

□ (향후계획) 정부는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농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 마련할 것이다.

Ⅲ. 피해 농가 보상 및 축산물 수급

가 피해 농가 보상

- (살처분 보상금) 정부는 보상 평가를 신속히 완료하되, 감액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

구 분	소요추정액	교 부 액	집 행 액*
구제역	17농가 45억원	-	-
A1	821농가, 2,612억원	2,009억원	1,223억원*

* 구제역은 보상평가 중임 ** A1 살처분 보상금의 농가 대비 90% 집행(747농가)

- (생계안정자금) 정부는 입식 지연에 따라 살처분 관련 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지원(10.5억원 기지원)하고 있다.

* 전국 농가 평균 가계비(월 257만여원)의 3~6개월분 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 (축산정책자금) 살처분·이동제한 대상 농가에 대해 축산 정책 자금 상환기간을 2년 연장과 이자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나 축산물 수급

- (수급 동향)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소고기·돼지고기 및 우유 등의 수급에 구체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백신정책 실시 후, '14~'16년 구제역 발생에도 수급 문제는 없었음

- (공급량) 2.12일 기준, 살처분 마릿수는 1,203마리로 전체 사육 대비 0.02~0.1%에 불과하여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구 분	한우	육우	젖소	합 계
살처분(A, 마리)	746	29	428	1,203
전체(B, 천마리)	2,730	152	418	3,300
비율(A/B, %)	0.03	0.02	0.1	0.04

□ (소비자가격) 한우·돼지고기 가격은 전년·전월과 비교시 하락세이며, 우유는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7월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 한우 소비자가격(등심 1등급) : ('16.2) 8,118원/100g → ('17.2.10) 7,829

*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 ('16.2) 1,858원/100g → ('17.2.10) 1,784

* 우유 소비자 가격 : ('16.2) 2,535원/ℓ → ('17.2) 2,515

* 우유는 원유가격연동제로 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 원유 기본가격을 결정하고, 올해 7월까지 원유가격은 922원/ℓ이 유지됨

○ 닭고기 가격은 상승세이며, 계란가격은 전년보다 약 44% 높은 수준이나 하락세이다.

* 닭고기 소비자가격 : ('16.2) 5,107원/kg → ('17.2.10) 5,400

* 계란 소비자가격 : ('16.2) 1,824원/10개 → ('17.2.10) 2,631

□ (추진계획) 한우 등은 수급 모니터링 강화 및 소비촉진 홍보에 중점, 계란·닭고기는 공급기반을 조기 안정화할 계획이다.

○ 중간 유통상인의 사재기, 축산물 가격상승에 편승한 가공식품 가격인상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엄정 대응하고,

○ 축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체 유해성 등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과도한 소비 감소를 방지하는 한편

* ① 감염 가축 모두 살처분, ② 구제역은 우제류에만 감염

○ 축산자조금(한우 94억원, 한돈 54)을 활용하여 할인행사 등 추진과 함께 산란종계 수입(9.5만수β월말까지), 산란계 수입(52만수β월말까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IV. 방역 협조 및 당부 사항

- (축산농가) 축사를 출입할 때에는 방역복과 전용 신발으로 갈아 신고, 매일 축산 농장 내·외부를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시고,
 -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시는 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하셔야 하며,
 - 농장에 외부인(택배, 우편물, 음식배달 등)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 출입하는 경우 철저한 소독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축산차량(가축·사료·분뇨운송, 집유 등)의 내부(핸들, 발매트 등)·외부(차량바퀴, 적재함 등)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시고,
 - 축산 농가의 모임은 하지 마시고, 구제역과 AI 발생국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구제역 또는 AI 의심 증상 발견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1588-9060, 1588-4060)하여 주셔야 합니다.
- (국 민) 불편하시더라도 가급적 축산 농장, 축산시설과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구제역 또는 AI 발생 농장 인근이나 지역에서 이동통제 등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 해외 여행시 축산농가나 시설을 방문하였다면 귀가 후 여행 중 입었던 옷, 신발, 물품은 세척·소독하여 주시기 바라고
 -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한 경우 5일간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 (정 부) 구제역과 AI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을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참고 1

2000년 이후 구제역 발생현황

구 분	'00년	'02년	2010년		
			'10.1월(포천)	'10.4월(강화)	'10/11년(안동)
발 생	○3.24~4.15 (23일간) ○건수 : 15건 (소 15) ※3개도 6개 시·군 -경기 파주·화성·용인· 충남 홍성·보령, 충 북 충주	○5.2~6.23 (53일간) ○16건(소1, 돼 지 15) ※2개도 4개 시·군 -경기 안성·용인·평 택, 충북 진천	○1.2~1.29 (28일간) ○6건(소6) ※개도 2개 시·군 -경기 포천·연천	○4.8~5.6 (29일간) ○11건(소7, 돼 지4) ※4개시도4개시·군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	○'10.11.28~ '11.4.21(145일간) ○3748건(소1935, 돼지1725, 염소 45, 사슴 43) ※11개 시도 75개 시· 군 -부산 1, 대구 1, 인천 3, 울산 1, 대전 1, 경기 19, 강원 13, 충북 8, 충남 10, 경북 16, 경남 2
혈청형	○형	○형	A형	○형	○형
발생원인 (추 정)	○수입건초 ○해외여행객(신발, 휴대축산물)	○외국인 근로자 관 리 소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	○농장주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	○농장주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
방 역 조 치	○살처분 182농가 2,216두 *소 2,021두, 돼지 63, 염소·사슴 132 ○예방접종 (Ring 백신)	○살처분 162농가 160,155두 *소 1,372두, 돼지 158,708, 염소·사슴 75 ○예방접종 배제	○살처분 55농가, 5,956두 *소 2,905두, 돼지 2,953, 염소·사슴 98 ○예방접종 배제	○살처분 395농가 49,874두 *소 10,858두, 돼지 38,274, 염소·사슴 742 ○예방접종 배제	○살처분 621농가 3,479,962두 *소 150,864두, 돼지 3,318,298, 염소·사슴 10,800 ○예방접종 실시 (전국 백신)
국 내 종 식	○예방접종 중단 후 1년 ※청정국 회복 : '01.8.31	○이동제한 해제 (8.14) 후 ※청정국 회복 ('02.11.29)	○이동제한 해제 (3.23) 후	○이동제한 해제 (6.19일) 후 ※청정국 회복 ('10.9.27)	○최종 발생 일 : '11.4.21(경북 영천) ※백신청정국 ('14.5.29)
재 정 소요액	○2,725억원 -보상금 71 -수매 2,428 -소독 등 202 -생활·경영안정· 입식자금 등 23.7	○1,058억원 -보상금 531 -수매, 소독 등	○272억원 -보상금 93 -수매, 소독 등	○1,040억원 -보상금 637 -수매, 소독 등	○27,383억원 -보상금 18,337 -수매, 소독 등

구 분	'14년	'14~'15년	'16년
발 생	○7.23~8.6 (15일간) ○3건(돼지3) ※2개도 3개 시·군 -경북 의성, 고령, 경남 합천	○'14.12.3.~ '15.4.28.(147일간) ○185건(돼지180,소5) ※7개 시·도, 33개 시·군 -인천2, 세종2, 경기56, 강원 11, 충북36, 충남70, 경북8	○'16.1.11.~'16.1.13. (전북_3일간), 2건 ○'16.2.17.~'16.3.29. (충남_41일간), 19건 ※2개 시·도, 6개 시·군 -김제, 고창 -공주2, 천안1, 논산14, 홍성2
혈청형	○형	○형	○형
발생원인 (추 정)	○해외유입 (유입경로 미상)	○해외유입 (유입경로 미상)	조사중
방 역 조 치	○살처분 3농가 2,009두 *돼지2009 ○전국 예방접종	○살처분 196농가, 172,798두 *돼지172,721소70,사슴7 ○전국 예방접종	○살처분 25농가, 33,073 두 *예방적살처분4농가 *돼지33,073 ○전국 예방접종
국 내 종 식	○이동제한 해제(9.4)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이동제한해제(5.22)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이동제한해제(4.27)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 은 하지 않음
재 정 소요액	○약 17억원 추정 -보상금 5 -소득 등 12	○약 638억원 -보상금 454 -생계·소득 19 -소득 등 165	○59억원 -보상금 59 -소득 등

참고 2

방역조치 대상 및 가용자원

□ 조치대상

구분	방역조치 대상
우제류 농가 (KAHIS 기준)	○ 전체: 147,148농가 / 1,500만마리 - 소 (119,614농가 / 3,374,510마리) - 돼지 (7,416농가 / 11,488,642마리) - 사슴 (2,937농가 / 34,635마리) - 염소 (17,181농가 / 407,833마리)
차량 (GPS 부착 기준)	○ 전체: 48,741대 - 사료(10,045대), 분뇨(1,769대), 동물약품 (991대) - 왕겨, 쌀겨, 통밥, 깔짚(766대), 기타 (35,170대)
도축장 / 가축시장 (KAHIS 기준)	○ 120개소 / 110개소
축산관계자 (축산업 및 국경검역관 리시스템 등록기준)	○ 전체 437,356명 - 직접종사자 (155,037명), 관리인(282,356명)
사료공장 (KAHIS 기준)	○ 289개소

□ 가용자원

구분	가용자원
1. 방역예산	(’16) 2,265억원 → (’17) 2,032
1) 시도가축방역	(’16) 1,126억원 → (’17) 1,078
2) 살처분 보상금	(’16) 600억원 → (’17) 400
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6) 385억원 → (’17) 405
4) 가축방역(검역본부)	(’16) 154억원 → (’17) 149
2. 방역인력	2,498명
1) 중앙(농식품부, 검역본부)	234명
2) 지자체(가축위생시험소)	660명
3) 공중방역수의사(군복무 대체)	469명
4) 방역지원본부(방역사)	291명
5) 공수의사(민간 위촉)	844명
3. 방역시설	
1) 중앙(검역본부)	진단, 평가, 연구시설(8과)
2) 지자체(가축위생시험소)	17 본소, 27 지소

참고 3

구제역과 AI 해외 발생 동향

□ 구제역

연도	국가	혈청형	
		O	A
2016	중국	4	-
	몽골	-	1
	사우디아라비아	-	1
	쿠웨이트	12	-
	모리셔스 공화국	163	-
	러시아	3	-
	캄보디아	1	1
	태국	97	20
	라오스	-	-
	베트남	6	5
	말레이시아	17	2
	미얀마	10	-
	계	313	30

□ 고병원성 AI

연도	국가	혈청형	
		H5N6	H5N8
2016	나이지리아	2	1
	베트남	7	
	일본	7	
	중국	7	
	가나		2
	네덜란드		6
	대만		15
	독일		23
	세르비아		3
	스웨덴		1
	영국		1
	오스트리아		1
	이란		12
	이스라엘		13
	이집트		1
	인도		28
	폴란드		21
	프랑스		95
	쿠웨이트		1
	크로아티아		1
	헝가리		176
합계	23	401	

참고 4

축산물 가격 동향

품 목		전년동월 평균('16.2)	전월평균 ('17.1)	'17.2.10	전년대비 등락		전월대비 등락	
					금액	%	금액	%
한우 (1등급)	소비자 (원/100g)	8,118	7,803	7,829	- 289	- 3.6	+ 26	- 0.3
	도매 (원/지육kg)	17,975	15,687	16,522	- 1,453	- 8.1	+ 835	+ 5.3
돼지 고기	소비자 (원/100g)	1,858	1,914	1,784	- 74	- 4.0	- 130	- 6.8
	도매 (원/지육kg)	3,990	4,638	4,371	+ 381	+ 9.5	- 267	- 5.8
닭고기	소비자 (원/kg)	5,107	5,062	5,400	+ 293	+ 5.7	+ 338	+ 6.7
	도매 (원/kg)	3,362	2,435	3,898	+ 536	+ 15.9	+ 1,463	+ 60.1
계란	소비자 (원/10개)	1,824	3,032	2,631	+ 807	+ 44.2	- 401	- 13.2
	도매 (원/10개)	1,448	2,344	1,889	+ 441	+ 30.5	- 455	- 19.4
우유	소비자 (원/ℓ)	2,535	2,515	2,515	- 20	- 0.7	-	-
	원유 (원/ℓ)	940	922	922	- 18	- 1.9	-	-

1) 생산액('15) : 한우 4조4천억원, 돼지 6조9천억원, 닭고기 1조9천억원, 계란 1조8천억원

2) 자료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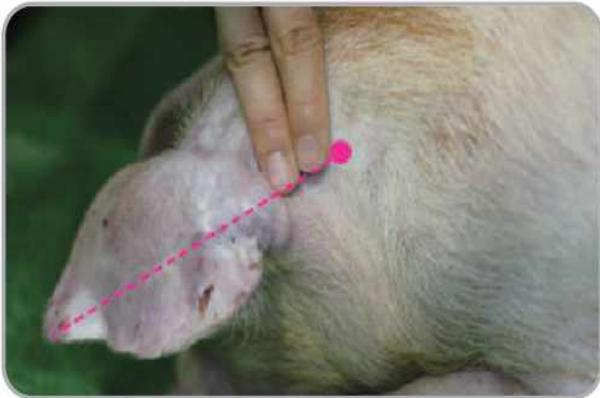
- 한우·돼지고기 지육가격 :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육 경락가격 발표자료
- 한우·돼지고기 소비자가격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자료
- 닭고기·계란 도매·소비자가격 : 농협중앙회 조사자료
- 우유 원유가격 : 원유가격연동제 '16년 원유기본가격('16.8~'17.7)
- 우유 소비자가격 : 한국물가협회 제공자료

□ 보관, 운송, 사전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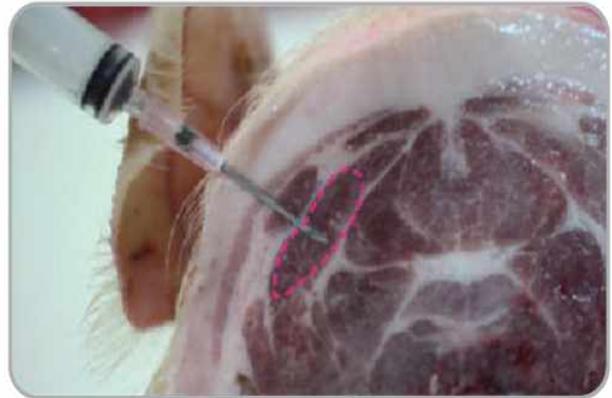
- ① 구제역 백신은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장상태(2~8℃)로 보관
 - 백신이 얼거나 오랫동안 외부에 방치될 경우에는 백신의 성분이 손상되어 효능이 저하될 수 있음
- ② 백신을 운반할 때에는 냉장상태(2~8℃)가 유지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
 - 아이스박스를 사용할 경우는 냉장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냉매(얼음팩 등)를 동봉하고 드라이아이스는 사용 금지
 - * (주의사항) 백신이 냉매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③ 구제역 백신은 오일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낮은 온도에서는 점도(뽁뽁한 정도)가 높아 접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예방접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상온(15~25℃)에 놓아 두었다가 사용할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시간 내(2~3시간내)에 사용하시기 바라며, 실내온도 측정을 위하여 온도계를 비치
 - 항온수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백신이 열판에 직접 접촉되어 설정 온도 이상 올라갈 수 있고, 수조의 물에 의해 뚜껑부분이 오염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④ 백신접종 전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병을 천천히 위, 아래로 20회 정도 흔들어 고르게 섞어 줌

□ 접종시 주의 사항

- ⑤ 소, 사슴, 염소는 어깨부위 근육에 접종하고, 돼지는 목 부위·귀 뒤 근육에 접종
- ⑥ 접종 할 때 주사바늘이 비스듬할 경우에는 지방층에 백신이 주입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하여 근육에 접종
- ⑦ 구제역 백신은 점도가 있는 오일백신이므로 접종시 근육내로 완전히 주입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주입
- ⑧ 주사바늘이 오염되었거나 끝부분이 뭉뚝해진 주사바늘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종부위에 염증(화농)이 발생 할 수 있음
- ⑨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백신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접종



| 귀 정중앙을 따라 귀 뒤로 손가락 2개(약 2~3 cm)정도 끝나는 부분



| 근육(빨강색 점선) 안에 정확하게 주입

□ 기타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문의

참고 6

연천의 구제역 A형 바이러스 유전자 및 백신매칭 분석

□ 유전자 분석

- (계통) A ASIA Sea-97 유전형(genotype)
- (상동성) '16년 베트남(소, 돼지) 바이러스와 99.8%, '16년 미얀마(소) 바이러스와 99.7%, '13년 중국 광둥성(돼지) 바이러스와 99.5%, '10년 포천(소) 바이러스와 91.41%

바이러스명	발생이력	상동성(%)	자료출처
VIT/14/2016	16년/베트남/소	99.8%	WRLFMD
VIT/16/2016	16년/베트남/돼지	99.8%	WRLFMD
MYA/2/2015	15년/미얀마/소	99.7%	WRLFMD
MYA/4/2015	15년/미얀마/소	99.7%	WRLFMD
MYA/3/2015	15년/미얀마/소	99.7%	WRLFMD
TAI/17/2014	14년/태국/소	99.5%	WRLFMD
GDMM/CHA/2013-S	13년/중국/돼지	99.5%	NCBI
GZ-ZB/CHA/2013	13년/중국/소	99.5%	WRLFMD
TAI/12/2015	15년/태국/돼지	99.5%	WRLFMD
TAI/24/2015	15년/태국/소	99.5%	WRLFMD
.....
A/Pocheon/001/Kor/2010	10년/한국/소	91.41%(585/640)	NCBI

□ 백신 매칭 분석

-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의 자료 분석 결과, A ASIA Sea-97형 연천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유사한 13개의 분리바이러스 중 11개가 현재 국내 소에 사용하는 백신주(A22 IRQ)와 매칭

군주	혈청형	지역형	유전형	A Iran-05	A/TUR/20/2006	A22 IRQ	비고
A/MOG/11/2013	A	ASIA	Sea-97	M	M	M	
A/MOG/13/2013	A	ASIA	Sea-97	M	M	M	
A/MOG/1/2013	A	ASIA	Sea-97	M	M	M	
A/MOG/5/2013	A	ASIA	Sea-97	M	M	M	
MAY/15/2014	A	ASIA	Sea-97	N	N	M	
TAI/20/2016	A	ASIA	Sea-97	N	N	N	
TAI/23/2016	A	ASIA	Sea-97	M	N	M	
MYA/2/2015*	A	ASIA	Sea-97	M	N	M	
MYA/5/2015	A	ASIA	Sea-97	M	N	M	
TAI/1/2015	A	ASIA	Sea-97	M	N	M	
TAI/4/2015	A	ASIA	Sea-97	M	N	M	
TAI/5/2015	A	ASIA	Sea-97	N	N	N	
LAO/1/2015	A	ASIA	Sea-97	M	N	M	추가 분석 (2.11)

- MOG: 몽골, MAY: 말레이시아, MYA: 미얀마, TAI: 태국, LAO: 라오스

- M: 매칭, N: 비매칭

* 미얀마 분리주는 연천바이러스와 VP1 유전자 상동성 99.7%로 염기서열상 거의 동일한 바이러스로 판단됨

한국환경공단 '통합허가 지원센터' 개설

- ◇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지원을 위한 공식 센터 15일부터 운영
- ◇ 기업 애로 사항 일괄 해결, 제도의 안정적 조기 정착에 기여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지원을 위한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2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되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매체 간 '오염떠돌이 현상'을 차단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 방식이다.

* 오염떠돌이 현상: 폐수처리 시 폐기물의 발생 또는 폐기물처리 시 대기·토양 오염 등으로 오염물질이 전가되는 현상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는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 오염배출원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허가 신청서류로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통합환경관리의 기술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환경전문심사원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지정되었으며,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통합법 제도 이행 활성화를 위해 이번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마련했다.

□ '통합허가 지원센터'는 그간 공단에서 운영하던 전화상담센터(전화 1522-8272)에 △오염배출원 영향분석 지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컨설팅 수행 등을 추가하여 관련 지원 기능을 통합·일원화했다.

- 이를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일괄로 해결해 준다.

-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배출영향분석 작성이 필요한 기업은 '통합허가 지원센터'에 사전 예약 이후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방문 컨설팅 예약은 전화상담센터(전화 1522-8272)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
 - '통합허가 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사업장 환경관리의 큰 틀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허가방식이 전면 개편됐다”며, “이번 '통합허가 지원센터'가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통합허가 지원센터 운영계획.

1. 추진 배경

- '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계의 통합법 이행지원을 위한 “통합환경관리 전화상담센터”를 既 설치·운영 중
- 여기에 배출영향분석 지원 등 관련 기능을 추가·통합하여 산업계의 전반적인 애로사항 해결 필요

2. 주요 기능

- (전화상담센터) 제도전반에 대한 상담,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용 안내
- (1:1 컨설팅) 배출영향분석,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 * 사업자가 예약·방문하면 배출영향분석,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등 센터에서 지원
- (기타 정책지원) 사업장 건의사항 DB화, 주기적인 홍보·설명회 개최

3. 운영 방법

- (장소) 한국환경공단(환경전문심사센터 내) 별도 장소 마련
 - * 대표 전화번호 : 기존 전화상담센터 대표번호(1588-8272) 활용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업무시간내)
- (인원) 초기 3명 전담(전화상담, 배출영향분석,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각 1명)
 - * 콜량, 컨설팅 건수 등에 따라 지원 인력 등 확대 예정
- (체계) 일반사항은 즉시 답변, 유권해석 사항은 확인 후 답변
 -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기능오류에 대한 기술지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

4. 기대 효과

- ‘통합허가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지원 기능의 통합·일원화,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및 산업계 이행지원 기능 강화
- 창구 단일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및 답변내용 일관성 유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11개 민간훈련기관, 24개 훈련과정 선정

- 서울대, 대한상의, 멀티캠퍼스, 비트컴퓨터 등 우수기관에서 626명 양성 착수

- 고용노동부는 13일 금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민간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 제4차 산업혁명 분야 융합형 고급직업훈련 확산을 위해 '17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예산 : 190억원)
- 공공부문인 한국폴리텍대학을 테스트 베드(Test-Bed)로 매년 훈련과정 신규 개발, 우수과정은 민간에 확산
- 민간의 역량 있는 교육훈련기관을 선도 기관으로 선정, 훈련과정 개설 및 초기 운영 집중 지원 (기존 훈련비의 최대 400% 지원)

-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20명) 등의 참여하에 3차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조,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진행

-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 멀티캠퍼스, 비트컴퓨터, 한국휴렛팩커드, 대한상공회의소 등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11개 기관을 선도기관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심사결과>

분야	과정 수	훈련기관
스마트 제조	6	대한상의(1), 멀티캠퍼스(1), 중소기업연수원(3),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1)
사물인터넷	9	멀티캠퍼스(2), 한국융합기술진흥원(1) (사)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2),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2), 한국휴렛팩커드(1), ICIA교육원(1)
빅데이터	6	멀티캠퍼스(1),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2), (사)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1), 비트컴퓨터(1), 한국융합기술진흥원(1)
정보보안	3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1), 한국휴렛팩커드(1), 한국융합기술진흥원(1)

- 이들 훈련기관에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정보보안 등 4개 분야 총 24개의 훈련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 특히, ▲IoT고급 개발자 양성과정, ▲인공지능 에이전트, ▲스마트 팩토리구축 전문가과정,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626명의 기업 맞춤형 핵심 전문인력을 신속 양성할 계획이다.
- 해당산업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 교·강사가 투입되고, 첨단 시설·장비, 고급 훈련컨텐츠를 통해 1,000시간 내외의 전문적·압축적 고급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며
- 관련 분야 전문지식의 습득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복합문제 해결역량(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 및 현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p>[훈련과정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문제 해결역량(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젝트 실습 25% 이상 구성 ▲ NCS 5레벨 이상의 난이도 있는 과정 편성 ▲ 교·강사진은 이론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훈련과정에 편성하도록 협약기업 확보·연계

- 이에 따라 **훈련생 선발도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각 훈련과정 관련 기초지식을 갖춘 자** 중심으로 기관별 필기시험, 면접전형 등 다양한 선발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인문학적 소양과 이공계 기술력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비이공계 졸업자에게도 훈련참여 문호 개방

○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될 훈련의 **훈련비 전액**과 함께 **매월 20~40만원의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게 되고 훈련이수 후 각 훈련기관의 **협약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LG CNS, ▲KT, ▲신한카드, ▲SAP코리아(주), ▲대우정보시스템 등 훈련기관별 다양한 협약기업 확보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만큼, 선도 훈련기관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직업훈련시장에서 개척자 (first-mover)**가 되어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 “IoT,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및 정보보안 분야에 관심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2월말 훈련생 모집을 시작하여 빠르면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며, 상세일정은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을 통해 공지된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최종 선정과정 목록

연번	분야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1	스마트제조	대한상공회의소	지능정보기반 스마트팩토리구축 전문가 과정
2	스마트제조	멀티캠퍼스	[4차산업 선도인력] 스마트 제조(Smart Factory) SW 개발자 양성(NCS)
3	스마트제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스마트제조 공정 최적화 및 공정전문가 양성과정
4	스마트제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스마트제조 PLM 구축 전문가 양성과정
5	스마트제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스마트제조 빅데이터와 CPS 활용과정
6	스마트제조	의료기기정보기술 지원센터	의료기기 3D 프린팅 전문가 양성 교육
7	IoT	멀티캠퍼스	[4차산업 선도인력] HANA platform 기반 IoT 고급 개발자 양성(NCS)
8	IoT	멀티캠퍼스	[4차산업 선도인력] 임베디드 SW기반 IoT 고급 개발자 양성(NCS)
9	IoT	(사)스마트미디어 인재개발원	사물인터넷(IoT)기반 Web서비스 개발자 과정
10	IoT	(사)스마트미디어 인재개발원	사물인터넷(IoT)기반 Mobile서비스 개발자 과정
11	IoT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	임베디드 로보틱스
12	IoT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	인공지능 에이전트
13	IoT	한국융합기술진흥원	임베디드 IoT 융합 스마트 플랫폼 개발자 양성과정
14	IoT	한국휴렛팩커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IoT 통합 전문가 양성과정
15	IoT	ICIA 교육원	IoT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수치 예보 시각화 과정
16	빅데이터	멀티캠퍼스	[4차산업 선도인력] 시기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NCS)
17	빅데이터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18	빅데이터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19	빅데이터	비트컴퓨터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 분석 전문가과정
20	빅데이터	(사)스마트미디어 인재개발원	Web+App기반 빅데이터 분석전문가 과정
21	빅데이터	한국융합기술진흥원	빅데이터 융합 사물인터넷 플랫폼 분석사 양성과정
22	정보보안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K-ICT 정보보호 인력양성과정
23	정보보안	한국융합기술진흥원	제4차 산업 융합기술 특화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과정
24	정보보안	한국휴렛팩커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지능 정보화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과정

청소년상담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상고민부터 위기상황까지 맞춤형 상담 강화

-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과정' 2017년 총 27회, 3천명 이상 배출 목표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를 올해 3000명 이상 배출한다는 목표로, '자격연수과정'을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관으로 2월~10월에 걸쳐 총 27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청소년상담사'는 일상고민부터 위기상황까지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직접 듣고 보호·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무분야로, 자격검정(필기시험+면접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자격연수과정을 수료해야만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이다.
 -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각종 청소년단체와 시설, 학교상담센터와 민간상담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청소년상담사는 2003년 처음 양성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1만 4,463명이 배출됐으며, 자격검정 참여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다.
 - 이는 점차 심각해지고 다양해지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상담인력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청소년상담사 연도별 양성 현황

연도	2004~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명	4,121	1,292	1,227	1,982	2,147	3,010	14,463

- 올해 자격연수과정은 2월 7일(화)~2월 15일(수)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천안, 광주 등에서 오는 10월까지 차례로 열린다.

- 1급·2급·3급 자격검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70시간과 사전과제 30시간을 합쳐 총 100시간의 연수가 진행된다.
- 교육내용은 ▲청소년상담프로그램개발 및 상담기법 ▲인터넷과의존 등 청소년위기개입 ▲청소년문제세미나 ▲지역사회 및 학부모 상담 ▲청소년 개인 및 집단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 한편, 2017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시험은 하반기 1회 시행되며, 필기시험은 9. 16(토), 면접시험은 12. 2.(토)~12. 3.(일) 실시된다.

※ 세부사항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

□ 양철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전문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이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각종 고민과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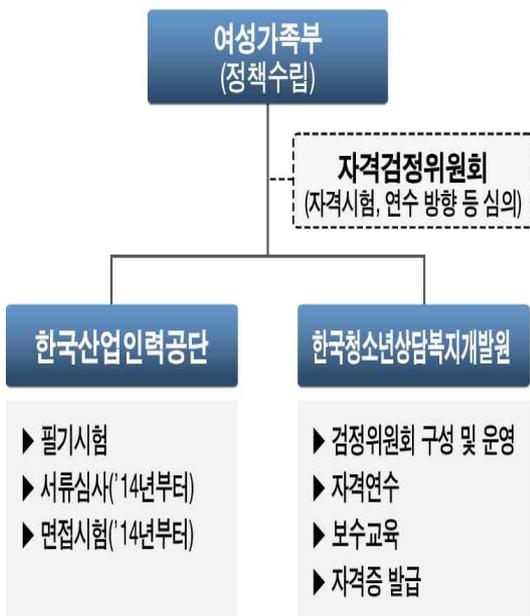
- 【붙임】 1. 청소년상담사 제도 운영 현황
2. 2017년도 자격연수 세부 일정 및 장소(안)

붙임 1

청소년상담사 제도 운영 현황

□ 추진개요

- (근거) 자격검정 및 연수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청소년상담사)
- (추진경과)
 - '01년 : 청소년기본법 개정(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도입)
 - '03년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
 - '16년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필기) 시행시기 변경(상반기 → 하반기)



<2017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절차>

취득절차	시행시기	시행처
원서접수	7.31~8.9	
↓		
필기시험 (1,2,3급)	9.16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1급(5과목) -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 2급(6과목) -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 3급(6과목) - 필수 5과목, 선택 1과목
↓		
면접시험	12.28	
↓		
서류심사	12.2~12.3	
↓		
자격연수 (100h)	익년4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youthcounselor.or.kr)
↓		
자격증 발급	익년5월~	

□ 청소년상담사 양성 현황 ('16.12.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총계	등급별			성별	
		1급	2급	3급	남	여
총 계	14,463	422	4,136	9,905	1,326	13,137
'03~'12년	6,097	304	2,108	3,685	518	5,579
'13년	1,227	12	225	990	114	1,113
'14년	1,982	15	409	1,558	184	1,798
'15년	2,147	52	564	1,531	192	1,955
'16년	3,010	39	830	2,141	318	2,692

“4차 산업혁명 공간정보가 주도” ... 공감(空感) 2017 개최 산학연관 모여 의견 나뉘...공간정보, 국민 실감형 정책으로 선보일 것

-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오는 2월 16일에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발전전략과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공간정보 분야 산·학·연·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유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감(空感) 2017’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일시) ‘17. 2. 16.(목) 13:30~17:20, (장소) 국토지리정보원 대강당

- 이번 행사는 연초에 국토지리정보원의 사업계획을 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수요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만들어 가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의지가 담겨 있다.
- 1부 행사에서는 최병남 원장이 발표하는 “국토원(국토지리정보원의 준말) 거듭나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주완 부장의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서비스 전략” 등 기관 및 공간정보 분야 발전 전략과 국토지리정보원의 4대 핵심 분야별 2017년 사업계획이 발표될 계획이다.
- 특히, 고객이 요구하는 공간정보 상품과 그 상품의 고품질이 확보 되도록 객체(요소, 부품) 중심의 공간정보가 대량으로 맞춤형될 수 있는 체계로 일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소개한다. 이밖에도 신국가기본도 체계 구축, 자율주행차용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아프리카 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굵직굵직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세부 사업계획이 소개되어 관련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발표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발전전략	국가 공간정보의 발전과 미래	원장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서비스 전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주완 부장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 기술	대전대학교 김민수 교수
사업계획 공유	차세대 국가위치기준체계 구축	국토측량과
	시계열 국토영상정보 생산체계 구축	공간영상과
	신(新) 국가기본도 생산체계 구축	지리정보과
	고객맞춤 공간정보 제공체계 구축	국토조사과

- 또한, 2부 행사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 직원과 세미나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더욱더 다양한 의견들이 친밀하게 교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하반기에도 이러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산·학·연·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국토지리정보원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우리 공간정보의 발전전략에 대해 다양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시는 글

공간정보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전전략과 그 전략을 실천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17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미래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7. 2.

국토지리정보원장 최 병 남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등 록	13:30 ~ 14:00	30'	참석자 등록	
개 회	14:00 ~ 14:05	5'	일정 소개	사 회 자
발전전략	14:05 ~ 14:30	25'	국토원 거듭나기 : 방식을 바꾼다. 미래를 준비한다.	원 장 님
	14:30 ~ 14:50	20'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서비스 전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주완 부장
	14:50 ~ 15:10	20'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 기술	대전대학교 김민수 교수
사업계획 공유	15:10 ~ 15:25	15'	차세대 국가위치기준체계 구축	국토측량과
	15:25 ~ 15:40	15'	시계열 국토영상정보 생산체계 구축	공간영상과
	15:40 ~ 15:55	15'	新 국가기본도 생산체계 구축	지리정보과
	15:55 ~ 16:10	15'	고객맞춤 공간정보 제공체계 구축	국토조사과
	16:10 ~ 16:20	10'	의견수렴	
소통의장	16:20 ~ 17:20	60'	산·학·연·관 의견청취	스탠딩 다과회

국토지리정보원 연락처 : ☎ 031)210-277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양식분야 4차 산업혁명 이룬다

-해수부, 16일(목)~17일(금) 제주서 '제1차 미래양식투자포럼' 행사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미래양식투자포럼(회장 김임권)과 함께 16일(목)에서 17일(금)까지 2일 간 제주도 라마다호텔에서 '2017년 제1차 미래양식투자포럼'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양식투자포럼은 첨단기술과 양식기술 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르웨이 '북대서양 씨푸드포럼*'을 본떠 작년 11월 발족된 단체로 정보통신·금융·수산 등 각계 전문가와 140여 개의 분야별 선도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 양식관련 기술과 투자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창구로서, 양식에 관한 기술·연구·정책·금융·무역 등을 주제로 매년 10개 이상의 세션을 운영(35개국, 350여 개 기업 참여)

작년 11월 11일 있었던 발족식에서는 140여개 기업 공동으로 미래양식 관련 기술제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분야 기업들 간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발족식 이후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양식 분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망 사업 모델을 소개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첫 번째 사업 모델은 원자재 운송 전문 선사인 'Polaris Shipping' 사의 대형선박을 활용하여 수산 양식, 신재생 에너지 생산, 해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외해 양식 기지를 마련하는 'Blue Revolution Project'이다. 20만 톤급 초대형 선박(배 길이 299.97m, 폭 50m, 깊이 25m, 높이 61.48m)에서 바다 송어 등을 양식하여 2019년 이후부터 연간 3천 톤 가량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다. 세계 최대 연어 양식업체인 노르웨이 Marine harvest 사에서도 2000년부터 선박을 활용하여

연어를 양식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도 2002년부터 이동식 외해양식시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다음으로, 넙치 등 양식 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수산물 주문·유통시스템을 제안한다. 소비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온라인 소통망을 통해 국민들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1인용 회 등 수산물 가정 간편식(HMR*)을 1~2일 전에 주문하고, 가까운 편의점, 마트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평소 이용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수산물 구입을 망설였던 잠재 고객들을 추가로 확보하여 소비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Home Meal Replacement

끝으로 장소·기후 등 주변 환경의 영향 없이 언제나, 누구나 수산물을 손쉽게 양식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양식 시스템인 '도시형 아쿠아팜(Aqua Farm)'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도시형 아쿠아 팜을 운영하는 생산자들로 생산자 조합을 구성하고, 가공·유통·판매 등을 공동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 경쟁력과 상품의 고른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안하는 이 사업을 통해 기존에 양식업을 어렵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다 쉽게 양식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여 양식 분야 창업을 장려할 계획이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향후 위 세 가지 사업 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투자 유치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이후 투자 희망 기업 등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식품목인 넙치를 주제로 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순환여과식 양식 시스템 등 첨단 양식 기술,

넙치의 가공·유통 발전 방안 등에 관한 토론회도 개최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모아 만들어진 미래양식투자포럼이 앞으로 양식분야에서의 첨단 기술과 양식기술 간 융·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선두 주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격려를 전할 계획이다.

□ 개요

- 일시/장소 : '17.2.16(목)~17(금)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 * 2.16일 위원단 현장방문 : ① 참다랑어 양식장(수과원), ② 넙치 양식장(비봉수산)
- 참석 : 미래양식투자포럼 위원단, 넙치 양식 관련 업계 등

□ 주요 내용

① 현장방문(2.16일)

- 위원단을 대상으로 양식기술의 현주소를 소개하고, 양식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참다랑어·넙치 양식장 방문

② 미래양식투자포럼 위원단 회의(2.17일 오전)

- 미래양식투자포럼 운영규정·계획 확정, '17년도 사업계획 확정 및 포럼 위원 추가(안) 의결 등 추진
- 선박양식, 도시형 아쿠아 팜 등 투자가 유망한 사업모델 발표 등

③ 넙치 양식 관련 전문가 세미나(2.17일 오후)

□ 그간 추진경과

- 미래양식투자포럼 발족('16.11.11)
 - 위원단(12명), 운영위원(14명), 전문위원(18명), 5개 분과위원회(140여개 기업)
 - * 회장 :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 / 부회장 : 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
- 미래양식 기술얼라이언스 협약 체결('16.11.11)
 - IT·BT 등 첨단기술과 양식기술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해수부-포럼-기술얼라이언스 3자간 MOU